· 적극행정의 모범답안 ·

코로나19 재유행 시기를 대비한 선제적

지하철 방역소독 변경시행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다



차량팀

· QUESTION ·

지하철 객실 내 방역 활동은?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.
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객실 방역소독 횟수를 법적 기준인 동절기 2개월 1회 이상, 하절기 1개월 1회 이상 보다 많은 주 1~2회 전문방역업체를 통해 시행하여 바이러스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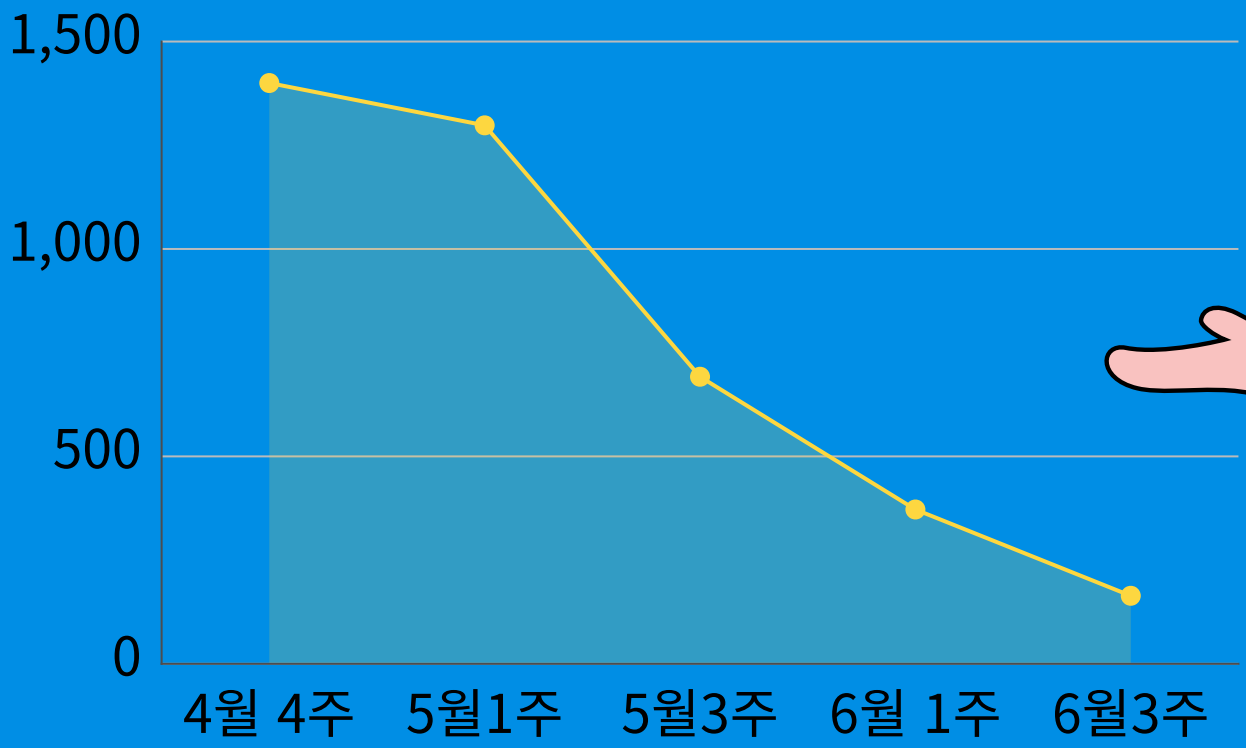
자체방역도 하고 있어요!



자체방역과 함께 차량 입고 시 객실 내 수직봉, 손잡이도 닦고 있습니다.

· 괜찮을 것 같은데? ·

코로나19의 감소세.. 방심은 금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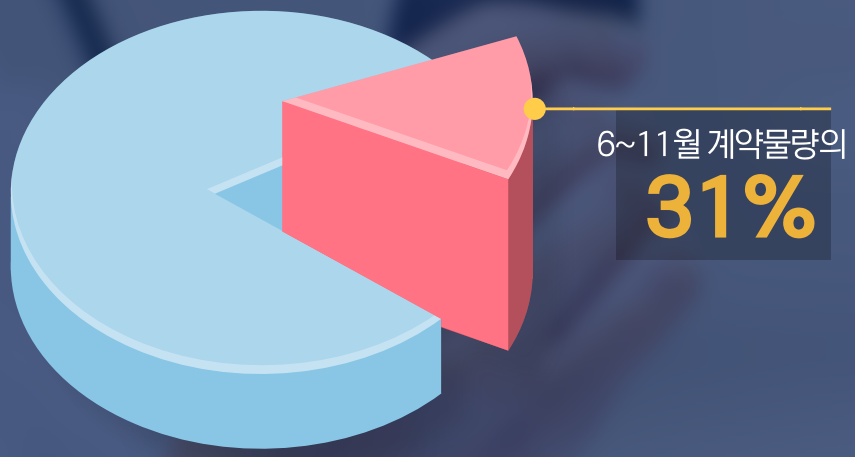


급증하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월 중순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고,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되는 등 사회에 다양한 변화가 일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, 여전히 재유행에 대한 우려는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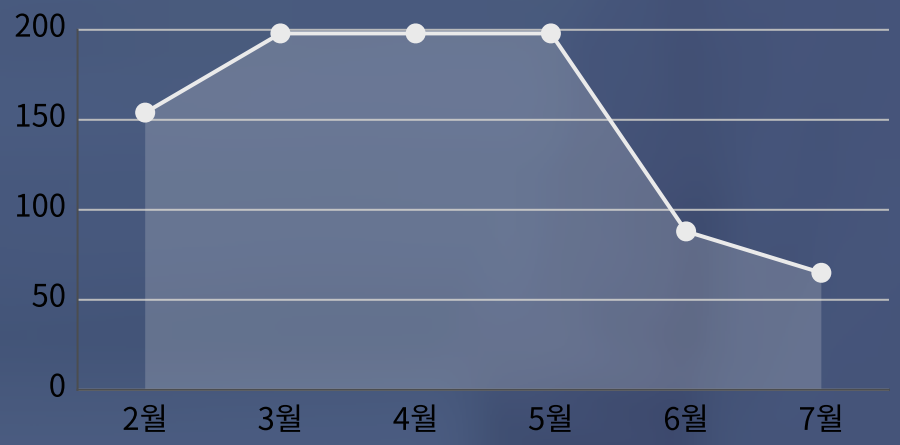
· PROBLEM ·

문제는 코로나 재유행 대비!!

6~11월 계약물량의 31% 조정



방역 물량 조정을 통한 6, 7월 방역 횟수가 급감한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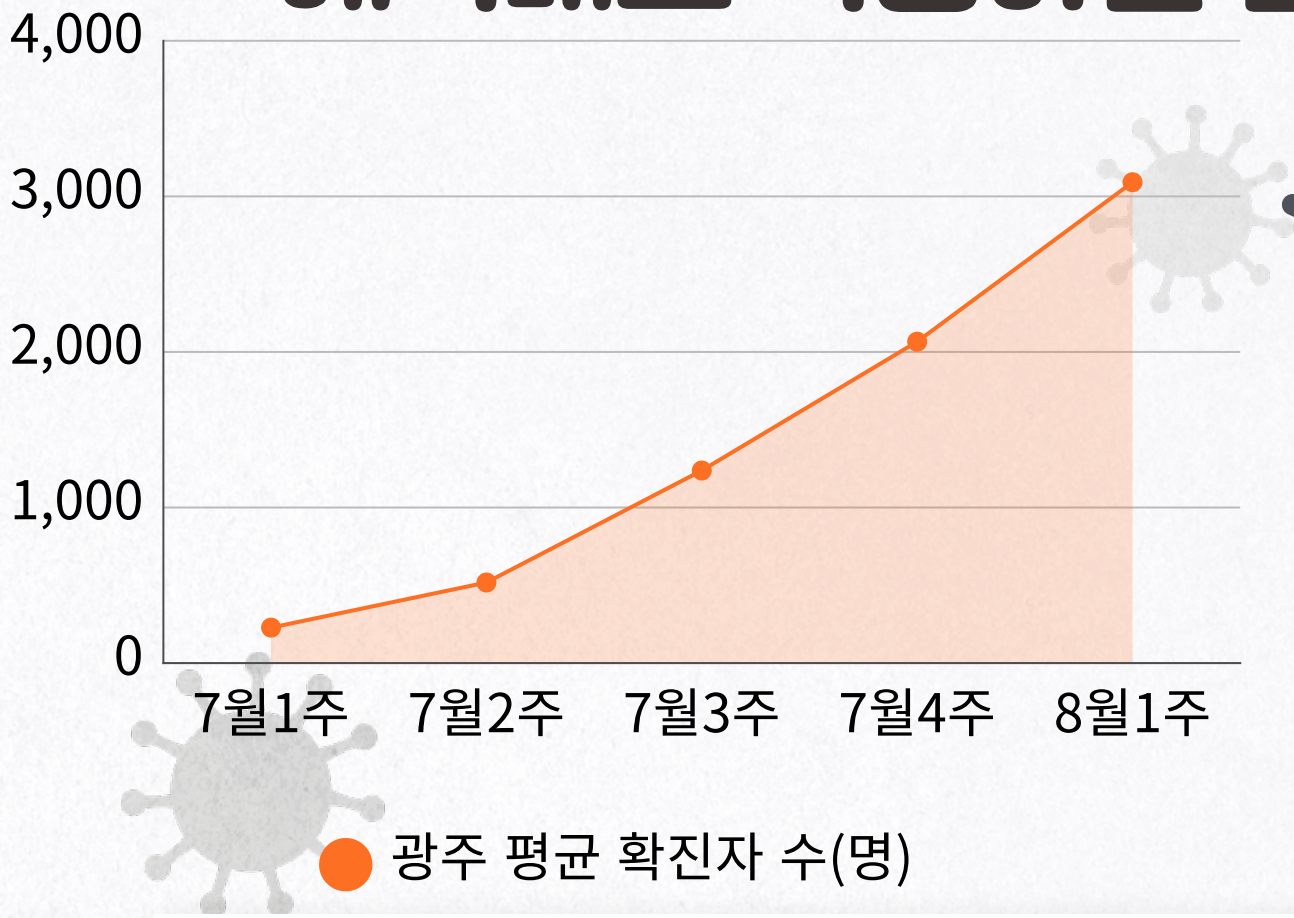


질병청과 방역 전문가들의 코로나 재유행시기를 8~9월로 예상함에 따라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했습니다.

계약물량은 정해져 있기에 추가 방역은 어려운 상황!
계약업체와 소통과 공감을 통해 감소세가 확연하게 예측되었던 6~7월 방역횟수를 줄이고, 8월부터 횟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6~11월까지 **계약 물량의 31%를 변경**, 다가올 재유행을 대비하였습니다.

· 정확해! ·

예측대로 폭등하는 신규 확진자!





7월부터 신규 확진자 수의 급격한 증가로 방역에 대한
사회의 관심은 높아졌습니다.

우리는,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
적극적인 선제조치로
광주 지하철의 방역은 빈틈이 없었습니다.

· 안심하세요 ·

We will find a way, we always have.



눈앞에 놓인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
향후 다가올 문제 상황을 예측하여 선제 조치를 함으로써
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.

믿고 타는 광주 지하철
앞으로도 계속 됩니다.